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내일의 강사
문성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 갈라디아서 6:14 -

- NTM 소속 선교사
- 글자 만들기, 성경 번역, 부족교회 설립 등의 사역
- 현) 파푸아뉴기니 미히 부족 25년간 사역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장소>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자 모집

오륜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에 함께할 봉사자 100명을 다음과 같이 선착순 모집합니다.

봉사 일시 11.18(토) 오전 9:00~오후 1:00(4시간)

참가 자격 오륜교회 중학생 이상 성도(봉사 확인서 필요시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신청)

※ 사전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11.12(주일) 오전 9:30~오후 1:30 접수 장소 교회 1층(안내데스크 옆)

문의 섬김과 나눔 위원회 총무 허수환 안수집사 010-5325-2591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시다

판카즈카펠라 목사 - 시편 23:1 -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편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살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이다’라는 믿음 하나를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부족함이 많다고 여기며 자신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이었던 저는 가문, 부모, 돈, 친구 등을 의지하며 살았고, 감옥에 가야만 하는 사건이 터져 한국으로 피해 와서도 여전히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친구의 살인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자 수소문했지만, 제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자수를 하게 된 친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중형을 받은 친구를 생각하니 괴롭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새로운 증언으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바뀌었고, 후원자도 생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친구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쓴 편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석방되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제 모든 걱정,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니 그때부터 주님은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판카즈, 너 신학공부 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싫어했던 저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로회신학대학 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졸업해서 올해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순종의 첫 선물은 아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더니 성경의 한 구절이 기적처럼 제 삶이 되어 매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첫 딸의 출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쉬지 않아 위험했던 순간,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기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셨고, 둘째 셋째까지 부족함 없이 자녀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인도 고향에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웃집에 전한 성경으로 병고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일로 힌두교 선교사인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등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저는 인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시며 “판카즈, 내가 너를 인도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시켰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니. 난 인도를 너무 사랑한다. 날 위해 인도에 올 수 없겠니? 꼭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울며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많은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인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저는 인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도 함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헌터증후군을 앓고 있는 요한, 화평 형제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김요한, 김화평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는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살 터울의 형제인 요한이(11세)와 화평이(10세)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형 요한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수막류 판정을 받고, 척추 꼬리뼈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6살이 되던 해에는 세포가 굳어지면서 몸이 굳어지는 헌터증후군이 발견되었습니다. 헌터증후군은 희귀유전 질환으로 3살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퇴행이 진행되어 20세를 넘기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요한이를 동생 화평이도 닮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프게 태어난 두 형제는 각각 생후 1년 6개월과 6개월이 되던 해에 최재열 목사(57/청로교회)가 운영하는 <푸르팜 그룹홈>에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이와 그나마 손을 잡으면 걸을 수 있는 화평이는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효소주사를 맞으면 몸이 굳어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며 돌보고 있는 최 목사 가족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져서 가슴으로 품은 요한, 화평 형제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그룹홈에 계속 머물기 어려워진 요한, 화평 형제를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어서 가정 위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에 따른 필요들이 너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들꽃 같은 강인함으로 영혼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한이와 화평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윤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윤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오늘은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하루가 어느 누구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2014년, 남편을 따라 간 미국 주재원 생활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된 서울 생활. 초등학교 아들 둘을 키우며 방송작가로서 살아가는 매일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추어 성공하고 싶었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방송작가로서 이름을 높이고만 싶었고, 성공한 남편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입으로만 주님을 찾았을 뿐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적 상태는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다보면 일주일에 삼사일은 밤을 새야 하는 방송작가 일, 몸에서는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 매년 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종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소견에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픈 곳도 없었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방송작가로서 맡겨진 일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저였습니다. ‘주님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 밖에 없는데... 왜 저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어리잖아요...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었습니다. 게다가 9월부터 시작된 항암치료... 빠지는 머리카락과 주저앉고 싶을 만큼 육체의 고통,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 저를 붙든 건 주님이셨습니다. 몸이 허락되면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해서 찬양으로 경배 드리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은 찬양과 말씀으로 제 영과 육을 회복해주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18번의 항암치료 동안 머리카락은 다 빠졌지만 주님은 늘 세밀한 손길로 저를 돌봐

주셨고, 이제껏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놓게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남편과 자식의 성공을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전능자 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평안이 임했습니다. 육체의 질병 또한 전능자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017 다니엘기도회를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으로 하루하루가 늘 설레 입니다. 세상에서 맞보지 못한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권유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효진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므로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다는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게 되고, 나의 기도만을 올려드리기 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이정열 집사 | 강동1교구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